

한구절
목 상



2026.5/6

평촌 대한 예수교장로회

새순교회
Sae soon Presbyterian Church

한 구절 묵상은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성경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3년 1독 커리큘럼으로 매일 성경을 1장씩 읽어가며, 그 중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❶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에 따라 매일 1장 읽기에 도전해 보세요.
3년과정으로 3년에 성경 1독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 ❷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을 묵상노트를 활용하여 개인 묵상해 보세요.
- ❸ 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 한 구절 묵상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보세요.
- ❹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가정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보세요.
- ❺ 다락방 모임과 청년부 순모임에서 한 구절 묵상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 ❻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구절 묵상의 개인 묵상과 은혜를 나눠보세요.

한 구절 묵상 3년과정 커리큘럼

	1년	2년	3년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사사기	여호수아 / 룯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 시편1	잠언 / 시편2	전도서 아가 / 시편3
선지서	이사야 호세아 요엘 / 아모스 오바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요나 / 미가 / 나훔 하박국 /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학개 / 스가라 말라기
복음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울서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 빌레몬서
일반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 ❶ 3년간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 ❷ 커리큘럼은 매일 성경 1장 분량씩 진행됩니다.
*묵상이 어려운 본문(인구조사, 족보, 성막제작, 열방심판 등)은 묶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 ❸ 3년 커리큘럼에 맞춰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이 집필됩니다.
- ❹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은 격월로 마지막 주 주일에 배부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핸드북 PDF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이렇게 묵상하세요.

1 기도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2 본문읽기

묵상구절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3 묵상하기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5/1 분노의 파괴력

오늘의 본문 1 창세기 34장

아굽의 딸 디나가 세겔으로부터 큰 상처를 얻습니다. 이후 아굽의 두 아들이 복수를 감행하고 아굽은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을까 두려워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4장 15-16절

[개역개정]

- 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 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니와

[새번역]

- 15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 16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겨레가 되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

세겔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에 맞는 엄중한 심판과 책임을 저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굽의 아들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 분이 풀릴 때까지 그 민족 전체를 짓밟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인 '할례'를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분노에 마음을 빼앗기면 더 큰 책임을 물어, 분이 풀릴 때까지 응징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혹시 우리도 종종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깊은 분노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1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2 분노의 마음 때문에 내가 평소에 지키려 했던 신앙의 기준이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4 묵상노트

질문에 따라 묵상한 후
적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5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보십시오.
제공되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도 좋습니다.

6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오늘의 본문(1장 분량)을
읽고 묵상해보세요.




「한 구절 가정예배」 소개

① 우리가족 말씀 나눔

온 가족이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한 한 구절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요시아, 느헤미야, 에스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회중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는 성경 읽기는 그 자체로 큰 힘이 있습니다.


목적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깊은 메시지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나눔 질문을 돕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나눔 질문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3 주일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6:6-8, 새번역]

* 예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짐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짐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 그래서 예서 곧 에돔은 세일 산에 자리를 잡았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감사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②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눔을 통해 묵상이 풍부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③ 온가족 감사 나눔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감사를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④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대화를 통해 생긴 기도의 제목과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매주 대표를 정해 기도하기, 가족이 돌아가며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큰 상처를 얻습니다. 이후 야곱의 두 아들이 복수를 감행하고 야곱은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을까 두려워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4장 15-16절

[개역개정]


- 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 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새번역]

- 15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 16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겨레가 되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

세겜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에 맞는 엄중한 심판과 책임을 저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 분이 풀릴 때까지 그 민족 전체를 짓밟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인 ‘할례’를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분노에 마음을 빼앗기면 더 큰 책임을 물어, 분이 풀릴 때까지 응징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혹시 우리도 종종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깊은 분노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분노의 마음 때문에 내가 평소에 지키려 했던 신앙의 기준이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 신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후 벤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5장 4절

[개역개정]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새번역]

4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 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한 구절 묵상**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벤엘로 가기 전에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모아 땅에 묻습니다. 이 물건 중에는 세겜에서 분노로 유린하고 노략질해온 피 묻은 전리품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넘어, 분노와 탐욕으로 점철된 지난날의 나쁜 관습을 끊어내는 영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있다면, 손에 쥐고 있는 이방 우상들을 과감히 땅에 묻고 다시 벤엘로 올라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땅에 묻기로 결단해야 할 나쁜 습관 또는 마음 가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손에 쥔 이방의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장으로, 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세일 산으로 이주했고,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상세히 나열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6장 6-7절

[개역개정]


- 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 7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새번역]

- 6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 7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한 구절 묵상**

에서는 풍족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풍요가 그를 약속에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풍요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됩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없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의 풍요가 주님의 약속을 가리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6:6-8, 새번역]

- 6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짐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 7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짐짐승이 많아 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 8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 산에 자리를 잡았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과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많아진 재산은 서로의 길을 나누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자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세일 산에 자리를 잡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에서는 풍족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풍요는 결국 그를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지금 무엇을 더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게 되고, 이로 인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7장 5절

[개역개정]


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새번역]

5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한 구절 묵상**

요셉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곧바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면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신 후, 먼저 사람을 다듬으신다고, 꿈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둘러 사용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성숙하게 하신 후에 세우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꿈이나 소명이 오히려 부담이나 어려움으로 느껴질 때는 언제였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에 주신 꿈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저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유다는 다말이 가져온 증표를 보고, 자신이 다말에게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8장 26절

[개역개정]

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새번역]

26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한 구절 묵상**

유다는 다말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졌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변명 없는 인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선택보다 진실한 인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는 실패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된 고백을 통해 계보를 이어 가십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우리를 다시 시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정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의로우신 주님, 변명보다 정직을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요셉은 여호와와의 함께하심으로 감옥이라는 자리에서도 행동을 경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9장 23절

[개역개정]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동하게 하셨더라

[새번역]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한 구절 묵상**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요셉의 삶은 신뢰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닫힌 공간도 사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빛으십니다. 행동은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되는 삶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나는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주님,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 창세기 40장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0장 8절

[개역개정]

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새번역]

8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묵상**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두 관원장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꿈의 해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지만 정작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의 해석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을 때 의미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하나님이 우리(자신, 교회, 공동체 등)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껏 시도했던 저의 해석을 멈추고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기근을 대비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1장 56-57절

[개역개정]

- 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새번역]

- 56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57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한 구절 묵상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기근 속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그들을 살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극심한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리거나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이 영적 기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양식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창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말씀의 창고를 열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영적 기근의 시대 속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내가 열어야 할 창고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영적 기근의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주시고, 기근의 때에 저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가난한 땅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2장 6절

[개역개정]


6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새번역]

6 그 때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한 구절 묵상**

오랜 기근으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자녀들은 곡식을 판매하는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그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형들은 엎드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늘 요셉을 조롱했던 형들이 이제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반전의 역사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내어 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이 이루신 반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때 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에 반전이 임할 때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5/10
주일

고난의 끝자락에서

오늘의 본문 | 창세기 43장

망설임의 끝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허락하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3장 15절

[개역개정]


15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새번역]

15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한 구절 묵상**

야곱의 아들들이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야곱 또한 아들들을 내려보내며 영적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 서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을 각오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예물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에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난의 끝자락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43:15-19, 새번역]

- 15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 16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 17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 18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 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 19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형제들은 선물과 두 배의 돈을 준비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형제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지난번 돈 사건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이 커지고 상황을 나쁘게 해석합니다. 결국 그들은 집 문 앞에서 관리인에게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때로는 작은 일에도 걱정이 커지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에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요즘 우리 가족이 걱정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믿는 마음을 우리 가족에게 주세요.

5/11
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 창세기 44장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4장 33절

[개역개정]


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새번역]

33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묵상**

과거의 유다는 구덩이에 빠진 동생 요셉을 보며 은 20개에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비정한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다시 닥친 위기 앞에 유다는 이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며 동생 베냐민의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던 사람이 나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유다의 결단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권리나 편안함을 포기했던 작은 경험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이익만 챙기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기꺼이 저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5장 8절

[개역개정]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새번역]

8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요셉은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안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더 큰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나를 판 사람들'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견디거나 잊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 속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새롭게 해석되었던 경험은 있으신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시선이 묶여 있던 상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으로,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 가족 7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6장 3-4절

[개역개정]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새번역]

- 3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 4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는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곳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 후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운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축복의 땅이 되며 그 길은 약속의 여정이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선택이나 결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두려운 길 앞에서 혼자 걷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또한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은 지혜롭게 애굽을 다스립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7장 27절

[개역개정]


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새번역]

2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한 구절 묵상**

고센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기근으로 인해 잠시 머무는 이방의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과 아브라함,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나안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곳에서도 열매는 맺힙니다. 우리도 때로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머무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빛으시고 준비시키시며 일하십니다. 지금의 자리가 비록 지나가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지금 머무는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떠나기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의 자리가 제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에 이어질 유산을 남깁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8장 21-22절

[개역개정]


-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 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겔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새번역]

-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 22 그리고 네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겔을 더 준다. 세겔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우리 삶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끝조차 새로운 시작으로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죽음 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세겔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며, 작은 선택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애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가족과 공동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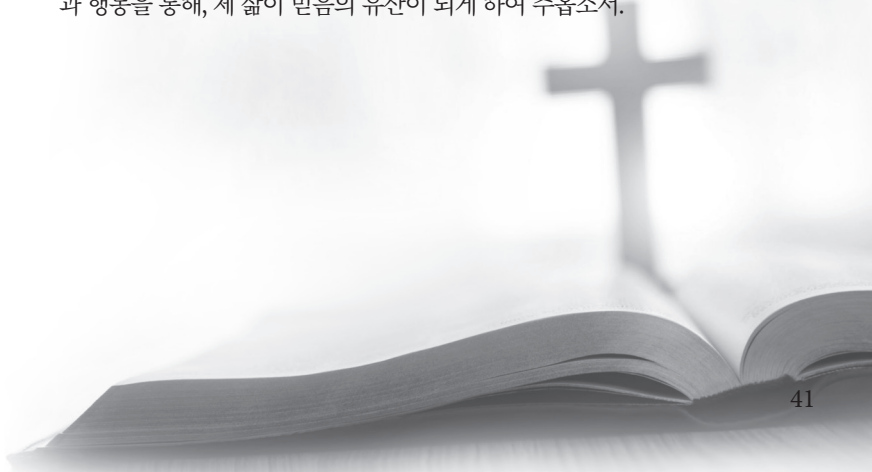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제 삶이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16
토

경계를 넘는 생명

오늘의 본문 | 창세기 49장

야곱은 요셉을 샘 곁의 무성한 가지로 비유하며, 그의 삶과 영향력이 하나님께 뿌리내린 생명에서 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9장 22절

[개역개정]


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새번역]

22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한 구절 묵상**

요셉의 풍성함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샘 곁'에 뿌리내린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샘 곁의 가지는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성장하며, 담을 넘는 가지는 공격성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면, 경계를 의식하지 않아도 삶과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담을 넘어 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애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내렸는가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의 습관과 선택들을 돌아볼 때, 내 삶의 근원은 어디에 뿌리내려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바다보다 깊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 그 광대한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뿌리내림을 통해, 제 삶과 영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50장 21절

[개역개정]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새번역]

21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한 구절 묵상**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복수로 갚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복수가 아닌 위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주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50:20-21, 새번역]

- 20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 21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은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며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돌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때로는 상처를 기억하며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마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서로의 실수와 상처를 붙들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격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상처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서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선지자나 천사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로써 상속자, 창조주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1장 1-2절

[개역개정]

-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새번역]

- 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 2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신약에서 완전하고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상속자이자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예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나요? 더 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구원자, 왕으로 보내주시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선택이었으며, 우리는 그를 통해 구원 얻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2장 9절

[개역개정]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새번역]

9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은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이라는 가장 처절한 고난을 통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잠시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머무시는 '사랑의 비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한 은혜입니다. 그분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낮아져야 할 영역은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랑의 비하'를 기억하며, 저 또한 낮아짐의 자세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5/20
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늘의 본문 |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것을 권면하며,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여 더 뛰어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3장 1절

[개역개정]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새번역]

1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

대제사장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임시방편들을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완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킵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시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21
목

우리의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본문 | 히브리서 4장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개정]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새번역]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의 고단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그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 어떤 연약함과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나를 무너지게 했던 일들이 있었나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지금 이 순간 맡겨드리고 싶은 내 마음의 짐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유일한 증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하옵소서.




5/22
금

선입견에 갇혔을 때

오늘의 본문 | 히브리서 5장

예수님은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계보)를 따르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5장 12절

[개역개정]


¹²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새번역]

¹²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젓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 묵상**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으니, 유다 지파인 예수님을 제사장의 이미지와 연결하는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더불어 이제는 기존의 좁은 시야를 더 넓혀서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나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기존의 체계를 넘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익숙한 기존의 질서, 관습, 해석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맞다고 굳게 확신했던 생각이 결과적으로 틀렸거나, 혹은 그 확신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졌던 경험이 있나요? 그 일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성숙을 촉구하며,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자라가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6장 11-12절

[개역개정]


-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새번역]

- 11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12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구절 묵상**

처음 믿었을 때의 뜨거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열정으로 출발하지만, 문제는 ‘끝까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정은 식고 부지런함은 흐려집니다. 어느새 ‘이 정도면 됐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성실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처음 마음이 흐려진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나 ‘끝까지’를 살아냅니다. 그리할 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연초 결단했던 마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요즘 내 삶에서 부지런함이 흐려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가는 성실함을 주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설명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개역개정]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새번역]

25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한 구절 묵상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끝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 주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나를 흔들리게 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으며 기도문을 아래에 적어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중보를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7:25-27, 새번역]

- 25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 26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 27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중보를 다시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요즘 우리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성소,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8장 1-2절

[개역개정]

- 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 2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새번역]

- 1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2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묵상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안을 없애는 확신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상황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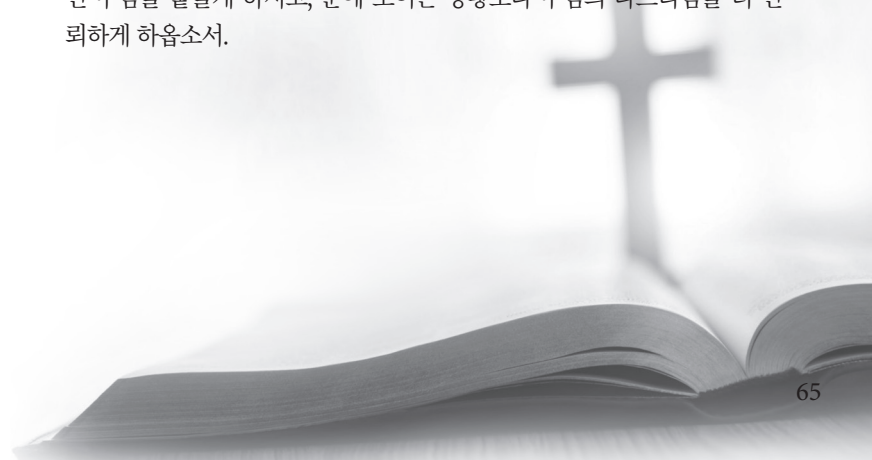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5/26
화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

오늘의 본문 |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옛 제사와 달리 사람의 내면, 곧 양심까지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9장 14절

[개역개정]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새번역]

14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 묵상**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양심과 마음의 방향까지 새롭게 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스스로를 정죄하던 내면의 목소리를 넘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흠 없는 삶이 정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결함은 완전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서는 담대함이자 자유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묶어 두지 않습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걸게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정죄는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양심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던 마음을 거두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걷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드린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서로 격려하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10장 19-20절

[개역개정]


-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번역]

-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한 구절 묵상**

구약시대에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또한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죄가 있는 경우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두려움이 아닌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나에게 두려움의 길인가요, 기대와 소망의 길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걸음이 두려움을 넘어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개역개정]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새번역]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구절 묵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방법을 '믿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5/29
금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의 본문 |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나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개역개정]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새번역]

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한 구절 묵상**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와 율법이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있던 문제의 해답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장차 얻게 될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수치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에 취하여 살기보다 영원한 문제의 해결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여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생길 때,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야 할 신앙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히브리서 13장 13절

[개역개정]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새번역]

13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니다.

 **한 구절 묵상**

‘영문 안’은 안전함과 유대교적 전통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영문 밖’은 고난과 수치의 장소이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전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이 지신 치욕의 자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영문 밖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안전함에 안주하지 말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불편함은 주님이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주님을 따라 도전해야 할 내 삶의 ‘영문 밖’은 어디인가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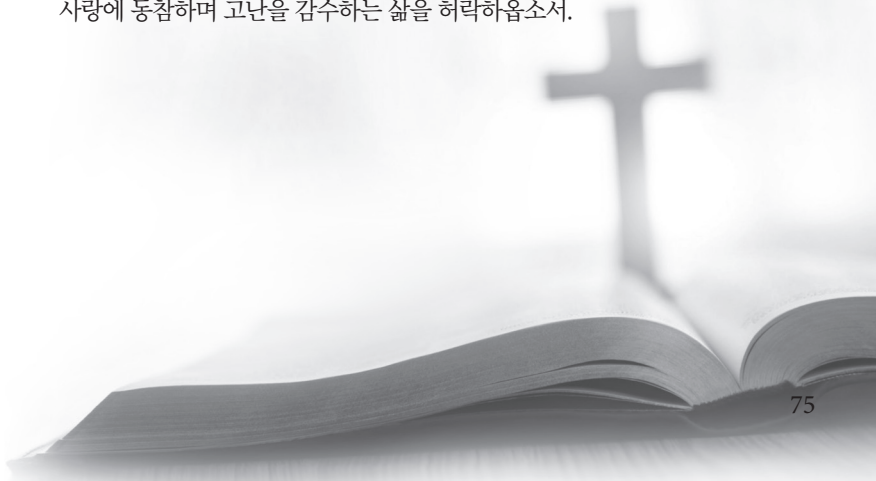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위해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 또한 그 사랑에 동참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허락하십시오.




5/31
주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지혜

오늘의 본문 | 고린도전서 1장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키며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개역개정]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새번역]

20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 구절 묵상

고린도교회는 거듭남을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갈등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처절하게 쌓아온 그들의 경험과 지식, 논리가 꺾이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옛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오던 삶의 지혜가 만들어낸 확신과 고집은 끝내 공동체 안에 파벌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듯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내가 추구해오던 세상적 지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지혜, 경험, 고집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쌓아온 지혜와 경험,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18-21, 새번역]

- 18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 19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 20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 21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지혜와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준과 생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요즘 더 의지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감사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개역개정]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새번역]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영은 측정되고 증명되는 것만을 실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영으로 바라보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그 너머에 감춰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기에 고난 속의 섭리, 평범한 하루 안의 동행, 이미 주어진 선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지나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눈으로 주어진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에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일상 속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고린도교회 안의 분열과 미성숙의 문제를 다루며, 사역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개역개정]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새번역]

7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늘 결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왜 내 열매는 적은지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수고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결과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된 적은 없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전하며,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충성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개역개정]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새번역]

2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단순한 열심을 넘어, 주인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신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박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삶입니다. 내 시간과 재능, 지금 서 있는 자리까지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화려한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 안의 죄를 책망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거룩한 정체성과 공동체의 순결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5장 6-7절

[개역개정]


-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번역]

- 6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 7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한 구절 묵상**

누룩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성질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어도 반죽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때로 죄에 대해 '이 정도는 괜찮다'며 남겨 두지만,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서서히 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새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더 잘해 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기억하는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새 덩어리로 부름받은 우리는 작은 타협 앞에서도 멈추어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새 덩어리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일상의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남겨 둔 묵은 누룩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정체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선언하며, 값으로 사신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개역개정]

-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새번역]

- 19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20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자유를 내 뜻대로 사는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속박된 존재가 아닌, '값으로 산 존재'라 부릅니다. 이는 빼앗긴 삶이 아닌, 되찾아진 삶입니다. 주인이 분명해질 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 없이 흔들리는 선택들이 중심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의 만족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되찾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삶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값으로 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7장 22-23절

[개역개정]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새번역]

22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23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신분과 지위가 바뀝니다. 종은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인은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인 사람들의 종의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어떤 문제나 지식보다 우선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연약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개역개정]


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새번역]

9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

자유 사전적 의미는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도 돈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자유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나의 만족이 아닌 형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형제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형제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주신 자유를 형제의 유익과 믿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8:9-13, 새번역]

- 9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10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 11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 12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 13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우리는 종종 “나는 괜찮아”라는 기준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나는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서로를 아끼고 세워주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오늘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이야기 해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감사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나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사랑으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며, 마치 경주자와 같이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개역개정]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새번역]

27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꺾는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정작 나 스스로를 말씀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 안의 고집과 욕망을 다스리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끊어내야 할 내 안의 고집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지만 제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기록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개역개정]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번역]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거창한 일과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력은 일상에서,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에 변화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특별한 순간이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허락하십시오.



바울은 주님의 성만찬을 왜곡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며 주의 식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1장 22절

[개역개정]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새번역]

22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칭찬할 수 없습니다.

 **한 구절 묵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의 식탁에 함께 모였지만 누군가는 배불리 먹었고 누군가는 굶주린 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며 강하게 질타합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서로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주님의 죽음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의 배고픔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배부름만을 위해 더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에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적어보세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의 식탁 앞에서 나누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맞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들 안에서 성령을 따라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개역개정]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새번역]

13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 묵상**

고린도 교회는 출신, 신분,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다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화해와 평화를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관계를 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 시대이기에 성경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을 추구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에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외면했던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그어놓은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미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6/12
금

사랑은 태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불리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개역개정]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새번역]

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사랑을 흔히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감정보다 태도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기 보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사랑이 단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쉽게 통제할 수 없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고, 부드럽게 대하며 자신을 낮출 때 사랑은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이런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개역개정]


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새번역]

12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종종 은사를 개인적인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싶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곧 은사를 통해 교회라는 집을 함께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보다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내가 교회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말과 섬김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게 주신 은사를 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말과 섬김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9-10절

[개역개정]


-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새번역]

- 9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 10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구절 묵상**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과거를 직면한 자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죄를 미화하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언은 존재의 근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줍니다. 은혜는 과거를 덮는 위로를 넘어 오늘의 사명의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나 자신을 설명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나요? 나의 노력과 성취입니까, 아니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과거의 성취와 열매가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붙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9-11, 새번역]

- 9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 10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나는 요즘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6/15
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오늘의 본문 |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앞으로의 사역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권면 및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개역개정]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새번역]

14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며,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옳음만 붙들면 관계는 쉽게 날카로워지고, 열심만 앞서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 일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됩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옳음을 붙들면서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다시 사랑으로 선택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감정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일이 주님을 닮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극심한 환난 속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그 사실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1장 8-9절

[개역개정]


-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 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새번역]

- 8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9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때 절망합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가 죽음을 기다리듯 고난은 우리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인도합니다. 바울 역시 깊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소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있습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6/17
수

우리를 위한 용서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2장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목적이 징벌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와 위로를 통해 하나 됨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2장 10-11절

[개역개정]

- 10 너희가 무슨 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 11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새번역]

- 10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 11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묵상

‘용서’는 헬라어로 ‘보내다, 놓아주다, 빛을 탕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란 더 이상 상대방의 잘못을 붙들지 않고 놓아주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행동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할 때 내 안의 분노와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용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서로를 용서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의 용서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어떤 자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모세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개역개정]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새번역]

17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바울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던 죄의 무게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무감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얽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나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구하는 기도를 적어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의무감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6/19
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개역개정]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새번역]

18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묵상**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좋은 렌즈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성공, 안락함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지만 그것은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잠시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보다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에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용기 있게 내려놓아야 할 잠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해주시고, 잠시의 안락에 마음을 빼앗겼던 행동을 용서하십시오.




6/20
토

화해의 직분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화해의 직분을 받았 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개역개정]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으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번역]

18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시 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 셧습니다.

 **한 구절 묵상**

화해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된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것이 화해의 본질입니 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을 뿐 아 니라,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직분은 선택이 아니 라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화해를 위해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 은 우리가 받은 직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먼저 화해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먼저 화해를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개역개정]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새번역]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고린도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은 율법적 정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가 선포해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내 하루의 선택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6:16-18, 새번역]

-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 18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방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6/22
월

두 종류의 근심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7장

바울이 디도를 통해 받은 좋은 소식으로 위로받았음을 나눕니다. 그가 전한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는 근심했지만 곧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7장 9절

[개역개정]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새번역]

9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한 구절 묵상**

바울은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죄보다 그 결과를 걱정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손해를 생각하며 낙심과 자기 연민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아파하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며 회개로 이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근심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될 때, 회개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 마음의 근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최근에 어떤 일로 근심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가까웠나요? 아니면 '세상 근심'에 가까웠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의 근심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며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6/23
화

섬길 수 있는 특권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8장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 권면하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본보기로 소개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8장 3-4절

[개역개정]


-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새번역]

- 3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 4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한 구절 묵상**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눔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였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섬김을 의무나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일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오늘 내게 섬김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그동안 섬김과 나눔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내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섬김의 자리를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누며 섬기게 하옵소서.

6/24
수

즐거 내는 자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9장

하나님께서서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드러지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은혜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9장 7-8절

[개역개정]

-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 8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번역]

- 7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 8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마지못한 시작이 뜻밖의 기쁨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중심이 다시 '기쁨'으로 향하도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삶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기쁨과 진심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마지못해 시작한 일 속에서 예비 된 기쁨을 발견한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이 흐려진 일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시작한 일에서 마음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흐려진 마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6/25
목

참된 자랑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10장

바울은 참된 자랑과 인정은 스스로가 아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17-18절

[개역개정]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새번역]

17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8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한 구절 묵상

스스로 쌓아 올린 자랑은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서 세워진 자랑은 상황과 평가를 넘어 지속됩니다.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과정을 바라볼 때, 시선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감사로 옮겨지며, ‘나의 행함’이 아닌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인정하시고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신뢰 안에서 자랑은 비교가 아닌 평안이 되고, 증명이 아닌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의 나는, 나의 노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랑과 인정의 삶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길이 아닌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6/26
금

용납과 분별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며 자신이 겪은 고난과 약함을 통해 참된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개역개정]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새번역]

1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한 구절 묵상**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가 전한 진리보다 거짓 사도들과 그들이 전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납이란 진리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품되, 거짓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용납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며, 용납하지 말아야 할 거짓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품게 하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개역개정]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새번역]

9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 묵상**

세상에서 약함은 감추어야 할 약점입니다. 약함은 감추고 강함을 드러내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약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약함은 나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가리고 없애야 할 수치가 아니라 자랑해야 할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수치와 약함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능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약함은 무엇인가요? 그 약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6/28
주일

진리를 지키는 삶

오늘의 본문 | 고린도후서 13장

바울은 글을 마치며, 성도들에게 진리를 위해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개역개정]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새번역]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에만 집중합니다. 본문에서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방해에 의해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유익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거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결국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과 고집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기를 구하며,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내가 마주한 선택의 순간 중, 내 유익이 아닌 진리를 선택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때로는 제 앞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3:5-10, 새번역]

- 5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 6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7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 9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성도들이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서로를 세워주며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갈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나는 요즘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진리를 따라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6/29
월

묵상의 즐거움

오늘의 본문 | 시편 1편

시편 기자는 악인의 길을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편 2절

[개역개정]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번역]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한 구절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되새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말씀 묵상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밤낮으로 묵상해야 할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일상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적어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이 제 입에 어떤 꿀송이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 묵상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서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편 11절

[개역개정]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이다

[새번역]

11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한 구절 묵상**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경외함’과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며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리는 떨림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즐거움이 균형을 이룰 때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떨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에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렵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불균형을 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신앙의 균형을 찾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